

홍지선 2차관, 고유가 극복을 위한 교통·물류업계 간담회 개최

- 24일 업계 건의사항 청취 및 극복방안 함께 논의

-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24일 오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(회의실)에서 교통·물류업계*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.
 -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, 택시 및 화물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극복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.
 - *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,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,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, 한국통합물류협회,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,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
 - 간담회 참석자들은 고유가로 인한 운임비 상승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, 유류비 지원 확대,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.
- 홍 차관은 “최근 중동 정세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, 교통·물류업계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”면서,
 - “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정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, 국민의 일상과 경제를 지탱하는 교통·물류가 흔들리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부서	교통물류실	책임자	과 장	배석주 (044-201-3804)
	교통정책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김병진 (044-201-3786)